

금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7조 단서조항 및 동법 제71조, 제57조제8항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요, 표결할까요 아니면 그냥 토론할까요?

○김승희 위원 저는 이의 제기를 하는데요.

물론 의사일정 그 부분은 제가 검토는 안 한 상황인데 상식상 우리가 오늘 이 법안소위를 개최한 것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합의에 의해서 개최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법안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토론이 된 것이고 그리고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안전 상정을 했던 관행을 볼 때 지금 이것은 조금 예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소위에서 반복적으로 논의가 됐던 거예요. 논의가 됐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부로 벌써 환자가 15명이나 발생을 하는 정말 굉장히 긴급한 시기에 여러 가지 쟁점이 많고 그리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을 급박하게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하겠다 그것도 이 법안소위에서 안전을 옹리고 심의할 때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제가 알겠지만 불요불급하고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되고 이것 없으면 우한 사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굉장히 급박하게 우리가 또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지만 대학교 신설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정말 또 다른 문제고 신설된다 하더라도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반대의견을 하고 지금까지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안전 상정이 되고 그리고 정해진 그 관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 위원 저도요.

○소위원장 기동민 잠깐만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두 분 말씀만 더 듣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김순례 위원 지금 우한폐렴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에서 굉장히 위중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정활동에서 바쁜, 의원들이 다 각자 4·15 총선 때문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신성인 자세의 모습으로 공적업무를 그 현장에서 맞서고 있는 차관님까지 여기 다 모여서 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 위중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간사 간 합의 없이 툭 놓으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지금 우한폐렴, 감염병, 검역 이런 부분의 문제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과정을 한 것인데 이렇게 혹 들어오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간 합의하십시오.

○소위원장 기동민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도 서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 했던 것도 또 논의되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법도 국회법 71조에 위원회에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될 수 있고 표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 위원님들은 계속 이 부분이 이번의 감염병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 심재철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도 그러시더라고, 감염병과 관련해서 예산과 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더라.

공공의대가 결국 감염이나 외상이나 분만이나 의료의 취약한 부분을 국가가 공공 영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인데 마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입으로는 립서비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테이블에 올리는 것까지도 반대를 하시니까 그냥 절차적으로 투표하세요, 투표.

○소위원장 기동민 윤일규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